

# 1인기업 창업동기에 관한 사례연구

심재후\*, 최명길\*\*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e-mail: echangup@wm.cau.ac.kr

## A Case Study on Motivation of Go-It-Alone Entrepreneur

Jaehu Shim\*, Myeonggil Choi\*\*

\*Dept of Entrepreneurship, Chung-Ang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1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1인기업가의 창업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Naffziger 등이 제안한 창업동기모델을 적용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인기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로는 개인적 환경, 개인적 특질 등이 있었으며, 창업 당시의 사업 환경은 조사 대상 1인기업의 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환경 중에서는 학력, 경험 및 네트워크가 1인기업 창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연구 결과 Naffziger의 창업동기모델에서 별도의 창업동기라고 보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와 개인적 목표는 개인적 환경, 개인적 특질 등 기타 창업동기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보아 이를 수정한 1인기업 창업동기모델을 제안한다.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 (2008년 11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2009년 3월)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1인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1인기업 형태의 창업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1인기업가는 어떤 동기로 창업을 결정하며, 1인기업가의 창업행동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인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Naffziger 등이 제안한 창업동기모델을 적용하여, 1인기업의 창업동기와 창업행동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1인기업의 창업동기와 창업행동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1인기업 창업에 적합한 예비창업자를 선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1인기업가 대상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1인기업의 정의

Peters는 'Me Inc.'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8]. Peters가 제시한 'Me Inc.'를 1인기업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인의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유형의 기업을 전제로 한 1인기업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Judson은 Go-It-Alone Entrepreneu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Go-It-Alone Entrepreneur가 운영하는 Go-It-Alone Business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6].

1) 최소의 투자로 창업하며, 창업자는 기업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 소유. 2) 적은 수의 사람으로 운영되는데, 그 숫자는 대개 1~6인. 3) 창업자는 소기업 설립이 목적이 아니며, 해당 사업에 무한한 수익 잠재성이 있다는 대전제에서 일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기업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총액 5억원 미만)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인 기업'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기업' 및 '1인기업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영어 표현은 각각 'Go-It-Alone Enterprise', 'Go-It-Alone Entrepreneur' 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인기업을 '기업의 법적인 형태와 무관하게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되면서 창업자가 기업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소유한 기업'이라 정의하고, 1인기업가는 '1인기업의 통제권을 소유한 기업가'라 정의한다.

**2.2. 창업동기 및 창업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창업연구 초기에는 창업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Gartner는 초기 창업 연구에서 밝힌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 내적 통제기준, 성취동기와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이 창업가에만 국한되는 개인적 특질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질이라고 하면서,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에 대한 연구의 의문을 제기하였다[5].

Carland 등은 "누가 창업가인가"라는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춤에서 춤꾼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고 Gartner의 주장을 비판하였다[4].

Shaver 등은 창업가 개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환경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자금조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 있다고 새로운 기업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일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창업가가 있어야 한다. 사람(창업가), 프로세스(창업프로세스) 및 선택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9].

Naffziger 등은 창업과정에서 창업동기를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업동기를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은 물론 개인적 환경, 개인적 목표, 사업 환경, 사업 아이디어 등 창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창업가가 지속적 창업행동을 하는 과정에 대한 동기모델을 제안했다[7].

이 창업동기모델을 통해 창업가의 개인적 동기와 함께 기타 창업 선행요인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개인적 동기 및 기타 선행요인들이 창업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사례연구방법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취약한 연구방법으로 인식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11].

Bygrave는 창업학 연구자들이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에 대한 부러움(Physics Envy)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문의 역사가 다르고 연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창업학 고유의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학문의 초기 단계인 창업학 연구에서는 정교한 통계분석보다는 현장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조병주는 "인과적 설명(why)이나 과정적 설명(how)을 깊이 있게 요구하는 연구이며, 현상을 연구자가 개재하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동시에 현실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사례연구방법이 가장 유효한 연구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창업현상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 방법이 유망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1].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창업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례연구방법이 적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으며, 1인기업의 창업동기와 창업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 사례연구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2. 조사방법 및 조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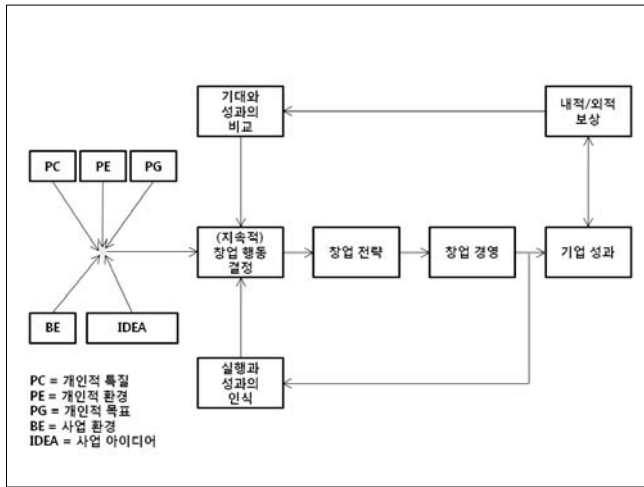
2009년 4월 현재 18개월 이상 1인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1인기업가 3명을 대상으로 각 3회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조사 사례의 인적사항 및 비즈니스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1인기업의 인적사항 및 비즈니스 현황

구분	성별 (연령)	비즈니스 현황
사례1 (T씨)	남 (42세)	대학입시 적성검사에 관한 연구, 집필, 상담, 강의(2006년 3월 창업) 비상근 직원 3명. 본인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1인기업이라고 인식.
사례2 (H씨)	여 (42세)	기업체 외국어교육 컨설팅, 강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강사파견(1996년 1월 창업) 프리랜서 강사 15명. 본인이 모든 일을 직접 진행하므로 1인기업이라고 인식.
사례3 (Y씨)	남 (45세)	미스터리쇼핑 리서치 관련 교육, 컨설팅, 외식기업 교육, 컨설팅(2007년 10월 창업) 3~5명의 파트너. 본인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용 사업을 전개하므로 1인기업이라 인식.

### 3.3. 연구모형 및 연구명제

1인기업의 창업동기 및 창업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Naffziger 등이 제안한 창업동기모형을 이용하였다[7].



[그림 1] Naffziger의 창업동기 모델

Naffziger 등이 제안한 창업동기모형은 개인적 특질과 함께 개인적 환경, 개인적 목표, 사업 환경 및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행동을 결정하는 동기(선행요인)라고 보고 있다. 또 창업가는 창업 이후 기업성과의 내적/외적 보상을 기대와 비교하고, 스스로의 실행이 기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여 지속적 창업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1인기업의 창업동기 및 창업행동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명제를 설정하였다.

- P1: 1인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환경이 창업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P2: 1인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특질이 창업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P3: 1인기업 창업시점의 사업 환경이 창업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P4: 1인기업 창업자의 사업 아이디어가 창업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P5: 1인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목표가 창업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4. 연구결과

### 4.1. 1인기업의 창업동기

사례연구 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창업동기 중에서 사업 환경(BE)을 제외한 네 가지

창업동기가 창업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1.1. 개인적 환경

사례연구를 수행한 세 사례 모두 자신의 개인적 환경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 환경이 다른 요인에 비해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개인적 환경 중에서 학력이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치된 응답이 있었는데, 사례1(심리학 전공)과 사례2(영어영문학 전공)의 경우 학업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내용적 지식을 습득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사례3(창업대학원 졸업)은 창업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것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개인적 환경 중에서 경험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의견이 같았는데, “대기업 부설 교육기관에서 15년간 강의했던 경험이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사례1)”, “여러 기업체에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게 되었다(사례2)”, “과거에 외식업을 창업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사례3)” 등이다.

개인적 환경 중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카페활동이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사례1)”, “해당 분야의 인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강자들의 도움과 추천도 도움이 되었다(사례2).”, “SERI와 Daum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카페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교인맥이나 가족관계에서의 도움과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사례3).

이를 종합하면 1인기업 창업행동에 개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학연 및 혈연 등 전통적 네트워크보다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1인기업 창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P1은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명제이다.

#### 4.1.2. 개인적 특질

사례연구를 수행한 세 사례 모두 자신의 개인적 특질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개인적 특질 중에서는 성취에 대한 욕구(사례2, 사례3)와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사례1)이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응답이다 [2][10].

따라서 앞서 제시한 P2는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명제이다.

**4.1.3. 사업 환경**

사례연구를 수행한 세 사례 모두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금에 대한 접근성, 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 등 창업 당시의 사업 환경이 1인기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원인으로는 창업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소의 투자로 창업하는 1인기업의 특성상 사업 환경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과 사례연구 대상인 1인기업이 창업할 당시에는 1인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추정 원인 중에서 어떤 원인이 타당한지,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P3는 연구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명제이다.

**4.1.4. 사업 아이디어**

사례연구를 실시한 세 경우 모두 사업 아이디어가 1인기업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나, 사업 아이디어가 개인적 특질, 개인적 환경 및 사업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를 독립적인 창업동기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 특질, 개인적 환경 및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 사업 아이디어에 의해 창업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P4는 연구결과와 부합하지만, 사업 아이디어는 다른 창업동기를 창업행동에 매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4.1.5. 개인적 목표**

사례연구를 실시한 세 경우 모두 사업 아이디어 결정 단계에서 개인적 목표를 설정했고, 이 목표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나, 이 때 설정한 개인적 목표도 개인적 특질, 개인적 환경 및 사업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개인적 목표를 별도의 창업동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개인적 특질, 개인적 환경 및 사업 환경 등의 동기를 고려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개인적 목표도 설정하고,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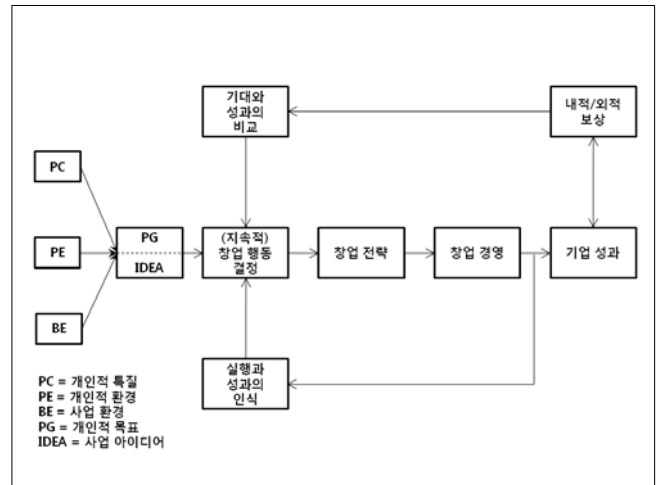
정한 사업 아이디어와 개인적 목표가 창업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P5는 연구결과와 부합하지만, 개인적 목표는 다른 창업동기를 창업행동에 매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5.1. 1인기업 창업동기모델의 제안**

앞에서 언급한 1인기업 창업동기들과 창업동기를 창업행동에 연결하는 사업 아이디어 및 개인적 목표를 도식화하여 Naffziger 등의 창업동기모델을 수정한 ‘1인기업 창업동기모델’을 제안한다[그림 2].



[그림 2] 1인기업 창업동기 모델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1인기업에 대해 Naffziger의 창업동기모델을 적용하여 창업동기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Naffziger의 창업동기모델을 수정한 1인기업 창업동기모델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1인기업 창업동기모델은 1인기업의 창업동기와 창업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1인기업 창업에 적합한 예비창업자를 선별하고, 1인기업가 대상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affziger의 창업동기모델 중에서 최초 창업행동의 동기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창업 이후 지속적 창업행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창업 이후 1인기업의 지속적 창업 행동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식 서비스 분야 1인기업에 대해서만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다른 분야의 1인기업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조병주, “사례연구방법의 창업연구 적용과 연구질문 개발”, *중소기업연구*, 제21권, 제2호, pp. 141-142, 12월, 1999.
- [2] Benzing, C., et al., “Entrepreneurs in Turkey: A Factor Analysis of Motivations, Success Factors, and Proble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7(1), pp. 68-72, 2009.
- [3] Bygrave, W. D., “The Entrepreneurship Paradigm (I): A Philosophical Look at Its Research Methodolog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pp. 7-26, 1989.
- [4] Carland, J. W., et al., “Who is an entrepreneur? is a question worth ask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pp. 33-40, 1988.
- [5] Gartner, W. B.,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pp. 11-32, 1988.
- [6] Judson, B., “Go It Alone!: The Secret to Building a Successful Business on Your Own”, Collins Business, Dec. 2005.
- [7] Naffziger, D. W., et al.,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pp. 29-42, 1994.
- [8] Peters, T., “Re-Imagine! Business Excellence in a Disruptive Age”, DK Publishing, Oct. 2003.
- [9] Shaver, K. G., et al., “Person, process, choice: The psychology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2), pp. 23-45, 1991.
- [10] Swiercz, F. W., et 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and the Performance of SMEs in Vietnam”, 11(1), pp. 50-52, Mar. 2003.
- [11] Yin, R. K.,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2003. (신경식 등 역,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2005.)